

# 가정·친족 폭력 범죄 흉포화

### 교사 '외도 의심' 아내 살해 후 자해

### 매형부부에 공기총 발사 60대 사망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매형에게 공기총을 난사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끔찍한 가족간 강력사건이 잇따랐다.

5일 새벽 0시40분께 강진군 성전면 월산리 방재 인근 2번 국도에서 전남 B고등학교 음악교사 김모(52)씨가 승용차에서 아내 조모(45)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아내를 죽인 후 자신도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로 자해하는 등 자살을 기도했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고개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20여m 굴러 언덕에 부딪히는 바람에 중태에 빠졌다. 김씨는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조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아내 조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최근까지 심한 다툼을 벌여오다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오전 7시55분께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박모(71)씨의 집에서 박씨의 처남 조모(69)씨가 매형 박씨의 얼굴에 구경 4.5mm 공기총(M46)을 발사하고, 누나(72)의 머리를 총 개머리관으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조씨는 총을 쏜 뒤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매형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조씨의 누나 부부는 조산대 병원과 영암 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조씨가 2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매형 집 인근에서 기거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매형과 누나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했을 것으로 보았다.

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숨진 조씨가 지냈던 공기총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지만, 구경 5.5mm 이상의 공기총만 지구대에 영치하게 돼 있는 현행 관리기준에 따라 조씨가 개별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경찰에 신고된 공기총은 1만7천여 정으로, 이 가운데 9천여 정은 개인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실버 인터넷 강좌

광주시 북구노인종합복지관과 전남대 정보통신교육센터가 5일 개설한 '실버 인터넷교육' 강좌에 참가한 한 노인이 강의를 듣고 있다.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반 70명에게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 검색 요령을, 전문반 60명에게 인터넷 검색·전자상거래·홈페이지 및 이메일 사용법 등을 가르쳐준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 올 가족 살인·살인 미수 10여 건

### 배우자 폭력도 심각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69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배우자 폭력이 620여 건으로 90%에 달했다. 윗세대 부부간·가족간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가정폭력 범죄 중 단순폭행은 줄었으나 흉기·둔기 사용과 감금·협박 사례가 급증하는 등 '강력범죄' 경향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중 흉기·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한 전폭적인 사례는 2005년 1천115명(전체 가정폭력

사범의 8.7%)에서 2006년 1천 285명(10.0%)으로 증가했다. 전체 2주 이상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2005년 773명(6.0%)에서 833명(6.5%)으로 늘었다.

(사)광주여성성의 전화 권현희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이 최근 점차 흉포화·과격화되고 있는 것은 단순 폭행 등 가정폭력이 상습·누적되면서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이라며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상습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해외여행 미끼 여권 밀매 전남경찰, 조직총책 검거

전남경찰청 외사계는 5일 공짜 해외여행 등을 미끼로 여권을 불법 판매해 온 여권 밀매조직 총책 김모(46)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홍콩 등지에 체류하면서 해외여행 경험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배모(여·41)씨 등 광주·전남 시도민 15명에게 "여권을 만들어 팔면 공짜 해외여행과 여권 1매당 1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이들을 홍콩과 말레이시아로 유인한 뒤 여권밀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국내 알선책

을 통해 모집한 배씨 등 15명을 차례로 해외로 초청한 뒤, 항공료·숙박비·사례비 등을 포함해 1인당 200만원에 여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지 여권 밀매자들에게 1매당 400여만원에 되팔아 모두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 등은 밀매 대가로 2박3일간 공짜여행을 즐기고 운도까지 받아 찾긴 뒤 버젓이 현지 한국영사관에 찾아가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복어 독 '조심'

### 여수서 40대 암 치료 위해 먹고 마비

겨울철 복어 요리가 제철을 맞았지만 주의가 요망된다. 자칫 복어의 독에 숨겨져 치명적인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후 3시50분께 여수시 신월동 K빌라 유모(47)씨가 갑자기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으며 119에 도움을 호소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8시에 어머니가 끓여온 복탕을 먹은 뒤부터 몸이 이상했다"며 "마비증세가 점점 심해져 신고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여천 전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환암치료를 받고 있는 유씨는 복어가 암 치료에 좋다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뒤 복탕을 자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어는 '테트로독신'(Tetrodotoxin)이라고 불리는 맹독을 갖고 있다. 독의 위력은 청산가리의 10배가 넘으며, 몸길이 30cm인 자지복(자주복)의 독은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다는 계학계의 분석. 게나 문어 등 바다생물과 개·닭 등 육상동물도 중독되면 죽는다. 이 때문에 갈매기 는 복어를 절대 먹지 않는다. 복 요리를 먹은 후 입과 입술, 혀끝이 짜릿하면 중독증세다. 심하면 구토가 나고 팔다리의 신경이 마비돼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다.

국내에서 발견된 복어 종류는 10속 28종. 우리가 먹는 것은 자지복을 비롯해 검복·까치복·복섬·은복·밀복·황복 등 10여종에 불과하다.

한편 복어 독은 진통이나 진静的 효능이 있고, 소량을 섭취하면 동통·위경련·야뇨증에 특효가 있다. 전립선암에 효과가 좋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발표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산가리의 10배가 넘으며, 몸길이 30cm인 자지복(자주복)의 독은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다는 계학계의 분석. 게나 문어 등 바다생물과 개·닭 등 육상동물도 중독되면 죽는다. 이 때문에 갈매기 는 복어를 절대 먹지 않는다. 복 요리를 먹은 후 입과 입술, 혀끝이 짜릿하면 중독증세다. 심하면 구토가 나고 팔다리의 신경이 마비돼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다.

국내에서 발견된 복어 종류는 10속 28종. 우리가 먹는 것은 자지복을 비롯해 검복·까치복·복섬·은복·밀복·황복 등 10여종에 불과하다.

한편 복어 독은 진통이나 진静的 효능이 있고, 소량을 섭취하면 동통·위경련·야뇨증에 특효가 있다. 전립선암에 효과가 좋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발표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나원침 (7047) 김중두



평중선도시의 중심특별을 우리는 3.636 6세대정기! (평중선 도시정리 계획) 수권선도시 피오리 062 367-9000

# 대학서 트럭 운전자 사망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유암동 서강정보대 교정에서 건물 내부 공사장 폐자재를 수거하던 허모(26)씨가 자신의 1t 트럭과 뒤에 주차해 있던 스탠다스 승합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채팅 여고생 성폭행한 외국인 영장

○서울 중랑경찰은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외국인 J(20)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에 서울 중랑구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A양이 술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했다는 것.

○조사결과 J씨는 12살이던 1999년 10월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돼 소규모 가내공장 등에서 일해왔다고.

/연합뉴스

# 온라인 게임하다 "실제로 한판 붙자"

# 광주 중학생 10여명 '현피'

중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현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청은 5일 집단으로 폭

력을 휘두른 김모(14·광주 M 중학교 3년)군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양모(12)군과 다투다 얻어맞자, 자신의 친구 9명을 불러 도망친 양군 대신 인근에 있던 양군의 친구 6명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과 양군은 이날 온라인 축구게임을 하다 서로 시비가 붙어 '결투' 장소를 정한 뒤,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현피=현실의 앞글자인 '현(現)'과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게이머(gamer)의 캐릭터를 살해하는 '피케이'(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피'(P)의 합성어.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이 결투를 신청, 실제로 만나 다투는 행위를 말한다.

# 개인파산 비리 법무사 등

# 집유·억대 부당이득 추징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5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브로커에게 거액을 받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이

모(7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법무사 명의의 도움해 개인파산·회생을 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E법무사 사무장 이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의 선고를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무대학 직업전문학교 606-7000

**전액 국비지원 교육생모집**

정부는학원(1년)	실업자훈련(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사(간호사, 의료기사 등)</li> <li>● 전자산업 (전자제품 조립, 검사 등)</li> <li>● 식품산업 (식품제조, 유통관리 등)</li> <li>● 자동차 (자동차 정비, 자동차 조립 등)</li> <li>● 항공 (항공운행, 항공기 정비 등)</li> <li>● 패션 (패션디자인, 패션제작 등)</li> <li>● IT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등)</li> <li>●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천 등)</li> <li>● 기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 (행정직, 세무직 등)</li> <li>● 전문직 (회계사, 통역사 등)</li> <li>● 기술직 (기계, 전자 등)</li> <li>● 서비스 (호텔, 관광 등)</li> <li>● 예술 (미술, 음악 등)</li> <li>● 체육 (스포츠 등)</li> <li>● 기타 (다양한 직업)</li> </ul>

**중장비교사 학점은행제**

상무대학 직업전문학교

**흠침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황토흠침대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黃土**

황토흠침대는 흠침대의 최고품입니다. 흠침대의 격(格)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상무대학 직업전문학교